

##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해결 방법으로서의 소셜 미디어 활용 사례 -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을 중심으로

홍 상 현

### I.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

‘다문화’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관심과 인식의 확장은 최근 한국 사회의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다문화’는 더 이상 특수한 상황과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특별한 소재가 아니라, 일상적 삶의 문제들과 함께 다루어지는 일반적인 주제가 되어가고 있다.

2015년 한 언론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이제 1%가 넘었으니, 다문화 사회에 대한 다수의 인식이 필요하다<sup>1)</sup>라는 내용의 기사를 다루었다. 거기에서는 2009년에는 0.35%였던,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6년 사이에 1%가 넘어서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온 뒤 8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비율은 3.5%<sup>2)</sup>로 증가했다고 교육부는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서 발표하였다.

---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3524).

1) 고희실, 「‘소수에서 다수로’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확대」, 『연합뉴스』, 2015.4.14., <https://www.yna.co.kr/view/AKR20150414118600371>.

2) 소해련, 「다문화 가정 학생수 18만 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 『한국다문화뉴스』, 2023.8.31., <https://www.kmcn.kr/mobile/article.html?no=4570>.

한국 사회에서 이주 및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2011년에 개봉한 영화 <완득이>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및 ‘문화다양성’ 과 관련된 논의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소재 중 하나이다. 그만큼 그 영화가 ‘다문화’ 관련 주제를 다룬 콘텐츠 중에서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은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문화’ 관련 소재를 다룬, 그러한 주제가 활발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한 초창기의 작품이기도 하다. 영화 <완득이>는 김려령이 2008년 발표한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며, 영화 이전에 연극으로도 각색하여 상연이 이루어진 바 있다. <완득이>가 소설로 발표되고, 대중적인 상업영화로 각색이 이루어진 시기는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급증하기 시작한 무렵이다. 그만큼 그 무렵 ‘다문화’ 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사회 일반으로까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는 생각이 가능하다.

그리고 많은 단체와 기관들에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 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비슷한 무렵에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들이 주관하는 ‘다문화영화제’ 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세종학당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에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및 ‘이중언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지금은 ‘문화다양성’ 과 관련된 내용들이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생활 일반의 영역에서의 논의도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지금의 모습을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국가’ 에 다다랐다는 생각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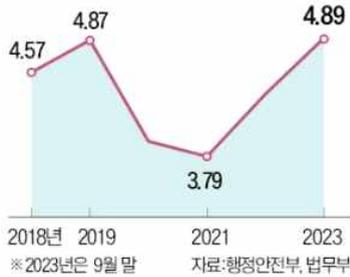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내국인 귀화자, 내국인 이민자 2세 및 외국인 인구를 합친 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을 경우 ‘다문화 · 다인종 국가’ 로 분류”<sup>3)</sup>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공개한 자료에서는 2023년 12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한국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하는 250만 7584명이라고<sup>4)</sup> 발표했다. 이는 한국에 비해서

3) 박혜리, 「국내 외국인 251만명 … ‘다문화사회’ 진입 눈앞」, 『코리아넷뉴스』, 해외문화홍보원, 2024.1.17.,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47344>.

4) 같은 글.

“외국인 근로자를 먼저 받아들인 일본(2.38%)보다 훨씬 빠른 속도”<sup>5)</sup>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진입”<sup>6)</sup>하는 추세이다.

인구대비 체류외국인비율 (단위:%)



이러한 통계적 수치들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비율에서 우리는 다문화 혹은 다

인종 국가로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수용은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제들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다른 인종과 문화에 대한 갈등이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거주 중국동포들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 그리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 등이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러한 문화갈등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몇 년 동안 대구에서 발생한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사건이다. 이슬람사원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문화적 차이에서의 갈등으로 번진 사건의 발생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문화적 갈등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대구 무슬림 커뮤니티 미디어 담당자인 무아즈 라자크(Mian Muaz Razaq)<sup>7)</sup>씨는 필자와의 인터뷰<sup>8)</sup>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2014년 경북대학교 무슬림 학생들이 모스크를 매입해 등록했습니다. 2020년 10월에 재건축을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2021년 1월까지의 모든 것이 괜찮았고, 이웃 중 누구도 공사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구청에서는 이

5) 김대훈·최해련, 「한국, 내년부터 ‘다인종 국가’」, 『한국경제』, 2023.10.2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721681>.

6) 같은 글.

7)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대구 무슬림 커뮤니티 미디어 담당자.

8) 2023년 3월 대면 및 2024년 4월까지 서면 인터뷰 진행(이하 ‘인터뷰’로 표기).

웃 주민 민원 때문이라며 갑자기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낸 것은 이웃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슬람이나 이주민을 좋아하지 않는 다른 집단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이웃을 이용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라자크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슬람사원 건설이 중단된 것은 2021년 2월이며, ‘이웃 주민의 민원 때문’이라는 것이 구청에서 건설 중단을 내린 이유이다. 결국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관련된 주민과 무슬림 커뮤니티 사이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일부 주민이 북구청에 사원 건축 취소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부터이다. 이 탄원서는 총 7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대부분은 자신들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다.

주민들이 인근에 건립 예정인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것 또한 그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그 자체를 두고 옳고 그름을 선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 표명 과정에서 문제가 된 내용이 있다. 이슬람사원 건립이 예정되어 있고, 현재 대구 거주 무슬림들이 기도 장소로 사용 중인 공간 앞에 돼지머리를 방치하거나, 돼지순대국밥을 취식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다. 이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문화갈등을 넘어서서 특정 문화에 대한 혐오로 확장된 현상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슬람 문화에서 돼지고기는 피해야 할 금지된(하람) 음식이다.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꾸란 2장 172~173절)는 내용이 이슬람 경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sup>9)</sup> 이슬람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런데 갈등의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다른 문화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물리적 충돌만 없었을 뿐 문화적 갈등에 대한 폭력적 대립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던 것이 이번 상황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진 이유였을 수 있다.

---

9) 이종화, 「이슬람에서 돼지고기를 금하는 이유」, 주요르단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2018.3.1., [https://overseas.mofa.go.kr/jo-ko/brd/m\\_11185/view.do?seq=704148](https://overseas.mofa.go.kr/jo-ko/brd/m_11185/view.do?seq=704148).



위) 대구시 북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앞에 놓인 돼지머리



오른쪽) 대구시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앞 골목에 돼지기름으로 추정되는 하얀 액체가 뿌려진 모습

10)

탄원서

2021년 2월 15일, 북구청장님께

대현 1동 1통 소재 이슬람사원 건축을 취소해주실 것을 엄중히 건의합니다.

1. 이슬람 사원 신축시 반경 1.5km의 주거밀집지역의 안전보장이 불확실합니다.  
주야마른 - 소음, 냄새, 무서움, 집단적 의식행위 등으로 인한 거주민들의 불만요소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요? 이를 해결할 방법과 확실한 대책을 내어주시십시오.
2. 대현동&산격동 주민들의 생명보장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슬람 사원을 거점으로 한 이슬람인들의 횡포가 예상&우려됩니다. 이로 인한 북구 대현동 주민의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내어주시십시오.
3. 이슬람사원 중심으로 반경 1.5km 이내 슬럼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요구
4. 주민들의 정서불안과 동네의 피폐화에 대한 책임을 북구청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5. 청와대-탄원서 및 국민청원을 넣겠습니다. 북구청당국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6. 북부주차장도로 맞은편 원대동-외국인 집단거주로 인한 슬럼화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동일한 현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박탈을 재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7. 대현 1동을 외국인(이슬람인들)의 거점지역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 하였습니다. - 이슬람문화권이 조성된 대한민국 여타지역의 문제점을 감안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 김규현, 「“순대지 마” 대구 이슬람사원 앞 돼지머리 3개 5개월간 방치」, 『조선일보』, 2023.3.10.,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83015.html>.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해결 방법으로서의 소셜 미디어 활용 사례

2021년 2월, 대현동 일부 주민들이 북구청장에 제출한 탄원서<sup>11)</sup>

위 탄원서에서 나타나는 “소음, 냄새, 무서움, 집단적 의식행위”, “생명보장권, 행복추구권”, “이슬람인들의 횡포”, “슬럼화”, “정서불안”, “피폐화”, “외국인(이슬람인들)의 거점지역”, “이슬람문화권” 등의 표현은 이후 본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이슬람혐오(Islamophobia)의 양상을 잘 보여 준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2018년 예멘 난민 수용 논란이나 기존 이주 노동자들의 작업장 및 일상생활에서의 인종차별, 노동권 관련 분쟁 등과는 달리 소속대학 근처에서 주거하는 ‘외국인 주민’인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주거하는 ‘한국인 주민’ 간에 발생하여 지속되고 있는 분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한국 사회에 이주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인종차별 가해자로 주목받은 행위자는 주로 국가기관이거나 특정 개인이었는데 반해,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논란에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 차별행위의 주체로 ‘선주민 집단’이 등장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2)</sup>.

육주원·이소훈(2022)에서는 주민의 탄원서 제출로부터 시작된 이 갈등의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을 제안했다. 거기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선주민’의 위계적 갈등이 등장한 점에 주목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방식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주거지와 인접한 신규 건설현장이나 개발 사업 등을 둘러싸고 흔히 볼 수 있는 ‘탄원의 정치’의 양상을 띤다”<sup>13)</sup>. 따라서 이 갈등의 문제를 주민 집단의 행위를 인종차별로 규정하기보다는 특정한 지역과 상황 안에서 인종주의가 재구성되어 실천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단순하게 국가의 억압에 대항하는 시민사회를 상정하고 일상에서의 인종주의적 관행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역으로 인종주의 자체를 개인의 병리학적인 문제로 협소화시키는 관점 모두를 재고할

11) 육주원·이소훈,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을 통해 본 인종주의의 위장술」, 『아시아리뷰』, 12-1(2022),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34-35쪽.

12) 같은 글.

13) 같은 글, 38쪽.

필요성을 제기한다<sup>14)</sup>.



다양한 언론에 기사화된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 관련 이미지

## II.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동적인 다문화주의로의 변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사건에서 갈등의 구조와 양상 등을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이것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유형이 변화한 것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그 유형이 변화되어 왔다. 즉, 근대적인 유형과 현대 최근의 유형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거주하는 유형에 있어서도 과거 근대에는 사회경제적인 입장에서 분리적인 양상을 띠었다면 최근에는 통합적 유형이 나타나고,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는 다수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유형이 최근에는 많은 노력으로 다원화를 인정하고 소통하는 사회로 거듭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은 각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초국가적인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세계화가 정보의 물결을 따라서 인간, 지식, 물자, 자본의 유동이 원활하게 이동한 결과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소산이다<sup>15)</sup>.

14) 같은 글.

15) 김일림, 「한국적 다문화 이론과 공간에 대한 고찰: 서울의 경우」, 『한국사 진지리학회지』, 19-4(2009), 97쪽.

구분	정적인 다문화주의	동적인 다문화주의
시대	근대(산업혁명이후)	현대(정보혁명)
거주유형 (사회경제)	분리	통합
문화유형	배제(일원론)	소통(다원론)
정치유형	국가적	초국가적

다문화 개념의 시대적 변화

김일림(2009)에서는 거주, 문화, 정치의 유형이 변화하면서 정적인 양상에서 동적인 양상을 보이는 다문화주의로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혁명’을 토대로 하는 ‘초국가적’인 형태로의 변화를 그 특징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문화적 소수자를 주류문화에 잘 적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sup>16)</sup>으로 여겨졌던 다문화주의에 대한 보수적 접근방식 또한 변화가 요구될 수 있다. 김가영 · 박나경 · 정수현 · 정제영(2023)에서는 Jenks, Lee & Kanpol이 제시한 다문화 분류 체계<sup>17)</sup>인 ‘보수적 접근’, ‘개방적 접근’, ‘비판적 접근’ 중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 정의 확대와 평등 실현에 관심”<sup>18)</sup>을 두고 있는 비판적 접근을 이야기한다.

‘보수적 접근’은 동화주의적인 입장과 다르지 않다. “동화란 소수자들이 원래의 문화와 관습을 버리고 자신들의 행동을 다수의 가치와 규범에 맞추어가는 것을 말한다”<sup>19)</sup>. 한국에서의 동화주의는 “이민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풍습과 문화의 정체성을 버리고 한국 사회의 문화와 정체성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sup>20)</sup>하는데, “동화주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비판의

16) 김가영 · 박나경 · 정수현 · 정제영, 「다문화교육 정책의 다문화주의 유형 분석(2006-2022)」, 『교육문화연구』, 29-6(2023), 30쪽.

17) Jenks, Lee, & Kanpol, “Approaches to Multicultural Education i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Philosophical Frameworks and Models for Teaching”, *The Urban Review*, 33(2001), pp. 87-105. 재인용: 김가영 · 박나경 · 정수현 · 정제영, 같은 논문, 31쪽.

18) 김가영 · 박나경 · 정수현 · 정제영, 같은 논문

19) 김일림, 「한국적 다문화 이론과 공간에 대한 고찰: 서울의 경우」, 98-99쪽.

20) 허영주,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 유형에 미치는 요인: 동화주의형과 다문화주의형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10(2018),

목소리도 높지만, 보편성을 확보함으로써 한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장점이라 할 수 있다” 21).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의 다문화교육이 주로 동화주의 모형에 기반을 둔 소수자의 적응교육으로 이루어져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한글교육과 한국문화교육에 치중해 왔다.<sup>22)</sup>

이러한 논의 안에서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아직도 동화론적인 정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한다.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탄원서를 제출한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선의로 음식 냄새와 소음 등을 ‘참아 왔다’고 토로하며, 과거 별다른 민원이 없었다는 복구청의 설명에 크게 반발했다”<sup>23)</sup>고 한다. 여기에서 “참아 왔다”는 표현은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볼 때, ‘부족함이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선의를 베풀어왔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것은 “결핍이 있다고 보고 이를 지원해 주는 방향”<sup>24)</sup>을 보이는 동화주의로서의 보수적 접근의 입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논의가 필요한 내용은 ‘복구청’이 갈등 해결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과거 별다른 민원이 없었다는 복구청의 설명에 크게 반발”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대현동 주민과 무슬림 커뮤니티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한 해결이 행정기관인 복구청에 있는 듯 보인다. 이는 변화하고 있는 다문화주의 안에서 한국의 상황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관주도형 다문화주의라고 불릴 만큼 정부의 영향력이 크다”<sup>25)</sup>는 점이다. 김일립 또한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①관주도형 다문화, ②다문화주의가 아닌 동화주의, ③유형/대상별로

---

, 623쪽.

21) 같은 논문.

22) 같은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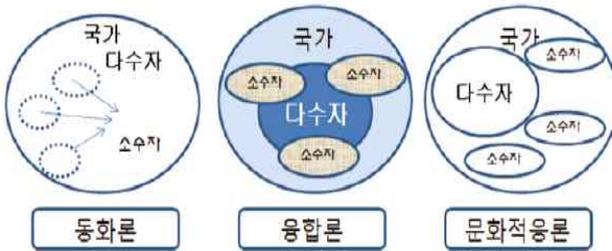
23) 육주원·이소훈, 「대구 복구 이슬람사원 갈등을 통해 본 인종주의의 위장술」, 41쪽.

24) 김가영·박나경·정수현·정제영, 「다문화교육 정책의 다문화주의 유형 분석(2006-2022)」, 31쪽.

25) 이언조, 「정책지향성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 분석-서울지역 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재인용; 김가영·박나경·정수현·정제영, 같은 논문, 27쪽.

차별하는 다문화정책, ④문화 분야만이 다문화라는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분석<sup>26)</sup>했다. 관(官)주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주의의 구조상 갈등 해결의 과정 또한 ‘관주도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 해결 주체에게 ‘민원’과 ‘탄원’을 제기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가장 먼저 고려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행정기관이 갈등 해결의 주체로 존재하는 구조에서는 동화주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무리는 아니다.

김일림은 서로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의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 ‘동화론(assimilation)’, ‘융합론(melting-pot)’, ‘문화적응론(adaption, salad bowl)’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sup>27)</sup>한다. 이 중에서 동화론은 그가 말하는 동적인 다문화주의로의 변화에서도 한국사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생각할 수 있다. 동화론은 소수가 다수 안에 흡수되어 ‘다수화(化)’ 되는 것을 목표<sup>28)</sup>로 하는 것이지만, 문화적으로 완전한 흡수나 동화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사회가 다문화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이어져왔다. 한국은 “2006년 국가에서는 관주도의 다문화국가임을 선포”<sup>29)</sup>하고, 이주 및 다문화 관련 정책을 행정부처 중심으로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의 해결

26) 김일림, 「한국적 다문화 이론과 공간에 대한 고찰: 서울의 경우」, 100~101쪽.

27) 같은 논문.

28) 같은 논문.

29) 같은 논문, 95쪽.

또한 관주도로 이루어졌는데, 그 주된 방법은 법제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서구사회와 같은 ‘시민개념의 재설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법제의 재정비’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제시<sup>30)</sup>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이었다.

해결책과 관련하여, 뿌리 깊은 편견에 맞서 싸우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외국 인재와 주민을 유치함에 따라, 그들이 평화로운 공존을 보장하고 한국 법률의 틀 내에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sup>31)</sup>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에 대한 해결방법을 묻는 질문에서도 라자크 또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법률’적 장치들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그 또한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문화 간 이해와 관용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주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간의 대화와 참여를 촉진하면 오해를 없애고 화합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존중되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sup>32)</sup>

인터뷰에서 그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갈등 해결방안 마련에 대해서 엄격한 법제적 장치와 함께 ‘주민과의 유대의식 증대 및 문화예술 장려’를 제안<sup>33)</sup>하는 움직임도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또한 ‘관주도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라자크씨 또한 “정부는”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프로그램 역시 ‘관주도’로 진행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장기영(2010)에서는 이러한 관주도 문화예술 행사가 “막대한 예산분배와 권한을 지닌 관주도로 인하여 축제의 비효율성과

---

30) 김학태, 「다문화사회에서의 법적 갈등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에서의 인권개념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39-1(2015), 297쪽.

31) 인터뷰.

32) 인터뷰.

33) 오형석,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갈등과 외국인 범죄」, 『분쟁해결연구』, 11-3(2013), 109쪽.

행사성 이벤트로 전락”<sup>34</sup>되는 결과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그는 문화예술 행사가 관주도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로 ‘전년도 행사 내용 답습’, ‘주제 및 슬로건의 부재’, ‘일회성/소비성 이벤트’를 이야기한다.

따라서 관주도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방법에 대한 필요성도 생각될 필요가 있다. 장기영(2010)에서는 안산 지역의 ‘송크란 축제’, ‘라마단 축제’, ‘나담 축제’ 등을 민간이 주도하는 이벤트로 소개<sup>35</sup>했다. 이는 다문화 이벤트들을 사례로 설명하면서 관주도에서 벗어난, 민간 주도 및 민간 협력의 사례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 주도 행사들 또한 ‘규모의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sup>36</sup>을 있어서 아직까지 완벽한 대안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여건은 아니며, 민-관 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민간 주도 및 민간과의 협력은 관주도로 진행되는 행사들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을 근거로 현대사회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시대적 분위기에 맞는 또 다른 새로운 방법들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Ⅲ. 반이민 정서 해결을 위한 소셜 미디어의 활용

개인이 어떤 집단에 관한 정보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슬람 혐오증의 경우, 주류 언론은 무슬림을 악당으로 묘사하거나 본질적으로 폭력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sup>37</sup>

“방송의 경우, 소수인종의 문화를 하위계급화 할 뿐만 아니라, 열등한 원시문화로 취급하며, 우리와의 관계를 이항 대립적으로 규정하기도 한다”<sup>38</sup>라는 이야기에서처럼 문화적 갈등의 상황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34) 장기영, 「안산시 다문화 축제 활성화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51~52쪽.

35) 같은 논문, 44~49쪽.

36) 같은 논문, 50쪽.

37) 인터뷰.

38) 신기섭.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의 현황과 방송 제작자의 태도에 관한 연구: KBS 시사·교양 제작자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편견과 스테레오타입이 작동했을 때 그것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디어의 활용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라자크(2023)에서는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이 기간 동안 반대 단체는 언론을 통해 모스크와 무슬림 학생 커뮤니티에 대한 오해가 퍼졌다”<sup>39)</sup>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아랍문화연구회 선교사인 레이먼드 킴은 모스크에서는 하루에 5번 ‘아잔’ 이라는 큰 소리로 기도를 외치는 소리가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sup>40)</sup> 그리고 “주민들은 또한 모스크에서 라마단 행사가 열리는데 밤새도록 모스크 확성기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해 잠을 잘 수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도할 목적으로 확성기로 아잔을 부르거나 외부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sup>41)</sup>라고 일부 언론의 기사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이 갖는 문제가 다수의 언론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의 글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문제가 되는 내용은 ‘반대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의 특정 언론에서 발생한 일이다.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갈등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사건이 막바지로 향할 무렵이었다. 그리고 사건이 막바지에 이르러 이 사건을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소개한 것도 주요 언론매체들에 의해서였다.

하지만 주요언론들이 이 사건의 진행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눈여겨볼 내용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온라인 소셜 미디어인 유튜브(YouTube)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부분이다. 사건의 막바지에 주요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그 내용을 다루

---

문, 2006, 재인용; 임양준, 「한국거주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문의 보도 경향과 인식 연구-조선일보 한겨레 경인일보 부산일보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2-4(2012), 422쪽.

39) Mian Muaz Razaq, 「The Daegu Mosque Issue: A Reflection of Islamophobia and Challenges to Religious Freedom in South Korea」, 『인권연구』, 6-1(2023), 252쪽.

40) 같은 논문.

41) 같은 논문.

기 시작한 것도 대구 무슬림 커뮤니티에서 운영한 소셜 미디어의 효과가 컸다.

온라인 미디어 활용의 효율성에 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모스크 건축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 불행하게도 언론 보도는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이나 건축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법 집행 당국의 지원 부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중에게 알리고 선전에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온라인 미디어의 활용은 실제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여러 유명 언론 매체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 저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제시하고 잘못된 정보를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sup>42)</sup>

인터뷰 내용에서 두 가지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일부의) ‘언론보도가 자신들의 부족한(어려운) 상황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주요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는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련 내용을 다룬 언론 보도 영상을 정리한 플레이 리스트 링크를 제공하여 내용을 공유했다. 이 리스트에는 총 27개(2024년 4월 현재)의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으며, 그 영상들은 그가 운영하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 연동되어 있다. 그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는 총 540여 개의 영상과 2,800여 명의 구독자(2024년 4월 현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채널은 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무슬림으로서 상호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콘텐츠들 대부분은 일반적인 유튜브 채널에서와 같이 한국에서의 생활과 언어, 문화 등을 깨주열한 방식으로 영상적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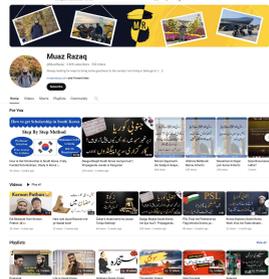
---

42) 인터뷰.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 관련 영상  
플레이 리스트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j-P9g60B3v0btP0RiW6nt2V9KDX3LSBA>



무아즈 라자크 씨가 개설한 개인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MuzazRazaq/featured>

대구의 무슬림 커뮤니티는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라자크씨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는 모스크 관련 사건의 미디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채널과 연동하여 플레이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관련 미디어 및 일반에 그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 방법은 그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었다. 우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으면서,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관련 사건과 이슬람 관련 정보에 대한 오해의 해결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그러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주요 언론들의 새로운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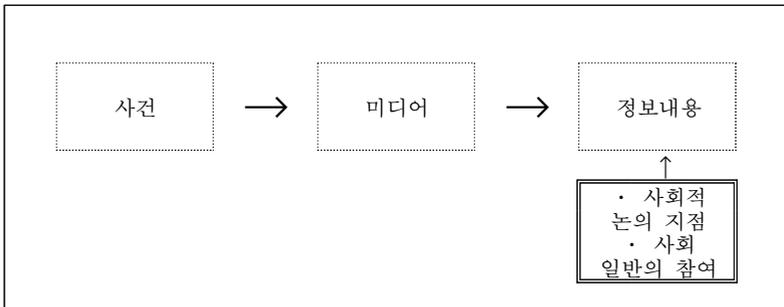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저는 언론인과 동료 학생들을 포함하여 한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 대학의 많은 한국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위해 나에게 연락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이슬람에 대한 정보를 구했는데, 여기에는 종종 우리에게 대해 전파되는 오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잘못된 정보를 없애고 이해를 높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온라인 존재가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 학생으로서 제가 등장하는 특별 방송을 녹화한 한국의 유명 뉴스 채널인 코리아 헤럴드(KOREA Herald)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무슬림 학생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조명하고 모스크 문제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저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해결 방법으로서의 소셜 미디어 활용 사례

특히 모스크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미디어 채널과의 인터뷰에 참여하여 우리의 메시지를 확대하고 우리의 대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그들의 방법이 갖는 가치로 사회적 논의의 지점과 사회적 참여의 단계가 변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뉴미디어로서의 소셜 미디어가 일반화된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변화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활용하였다. 전통적 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미디어가 만들어낸 콘텐츠의 정보내용이 사회적 논의의 지점이 되었으며, 거기에 대해서 사회 일반이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떠한 ‘스테레오 타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사회 안에서 이질적 집단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은 곧바로 ‘편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 사회 내의 이질적 집단에 대한 인식은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과 편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스테레오타입은 전통적으로 그 사회 내에 뿌리 깊이 내재한 것일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경향성은 대중 미디어를 통해서 재생산되어, 스테레오타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sup>4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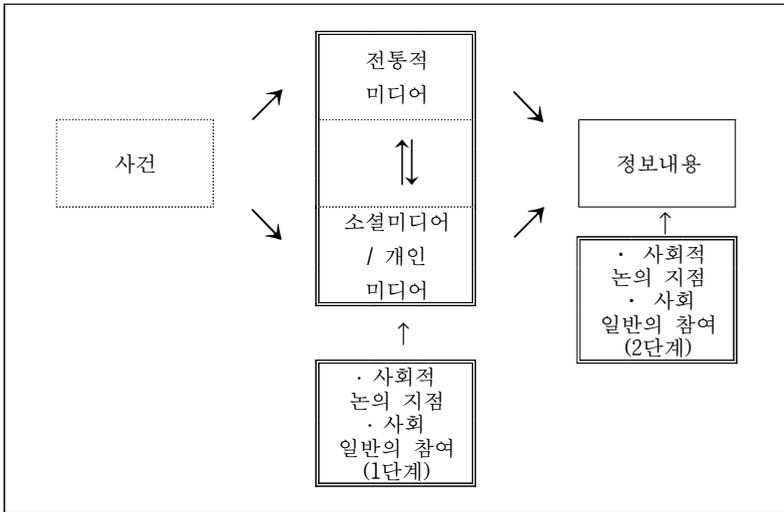


전통적 방식의 미디어에서의 사회적 참여와 논의의 지점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그러한 스테레오 타입으로 인한 편견의 문제를

43) 김성민, 「중앙 일간지의 다문화 집단에 대한 시각적 틀짓기 연구 - 조선일보, 국민일보,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2017 현대사진영상학회 논문집』, 2017, 7쪽.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콘텐츠의 정보내용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는 기존의 미디어와는 다른 방법이 사용된다. 사회 구성원들 개인 혹은 집단이 생각이나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 소셜 미디어의 목적인만큼, 거기에서는 일반적인 통념과 다른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의 과정을 거친다. 즉, 기존의 미디어에서는 주로 완성된 정보내용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 반면에, 소셜 미디어는 정보내용의 완성되기 이전에 사회적 논의를 거칠 수 있게 되었다.



소셜 미디어 사용 과정에서 변화한 사회적 참여와 논의의 지점

쌍방향성, 다대다(多對多) 소통, 무한대에 가까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양적 확산 및 네트워크화, 다양한 형태의 정보 통합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과 같은 기존의 대중 매체를 뜻하는 ‘올드 미디어(old media)’의 일방향적 소통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간주된다.<sup>44)</sup>

거기에서는 디지털 노마드 시대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관계 재설정이다. 기존의 레거시

44) 정현선, 「디지털 매체 시대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새국어생활』, 15-2(2005), 47쪽.

미디어(legacy media)는 선형(linear) 방식의 정보 전달 구조를 특징으로 했다. 즉, 송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송신자 → 수신자’ 형태의 관계를 보였다. 그러한 관계에서는 수신자가 송신자의 송신 내용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수신자의 반응은, 송신자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소극적으로’ 가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디지털-온라인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적 영상은 ‘수요가 있으면 콘텐츠가 제공되는’ 온 디맨드(on demand)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디지털-온라인 기반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송신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공유 과정에서 수신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송신자 ↔ 수신자’ 형태의 새로운 실시간 소통의 관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수신자는 송신자가 보내는 정보 내용에 ‘실시간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계할 수 있게 되었다.<sup>45)</sup>

#### IV.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

20세기말에 인간과 자원, 상품, 정보, 지식, 문화 등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하는 초국가적 세계에서는 이주와 함께 출신 사회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회에 통합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머물다 떠나야 했던 국가를 단위로 한 배타적 질서 속에서 움직이던 구시대의 이주민과는 다른 성격의 이주민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출신 국가와도 일정 정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다른 국가에서 장기적,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특정 국가에 배타적으로 귀속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sup>46)</sup>

오늘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1인 미디어 시대의 도래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over-the-top media service) 서비스의 구현이다”<sup>47)</sup>. 특히 소셜 미디어의 대표적인 형태로 등장해 있는 1인 미디어에서는 ‘1인 시점의 서술방식을 채택’과 ‘과대포장하지 않고 실제 일상적 삶의 이야기를

45) 홍상현, 「디지털 노마드 시대, 디지털-온라인 환경에서의 새로운 영상 커뮤니케이션」, 『호모미그란스』, 22(2020), 221~222쪽.

46) 김일림, 「한국적 다문화 이론과 공간에 대한 고찰: 서울의 경우」, 99쪽.

47) 함현, 「유튜브에 나타난 다문화 가정의 일상적 표현과 소통에 관한 연구」, 『영상기술연구』, 1-40(2022), 149쪽.

담아내는 진솔함' 을 그 특징<sup>48)</sup>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특징은 콘텐츠 수신자로 하여금 부담 없이 정보 내용에 다가갈 수 있는 편의성을 장점으로 한다. 그리고 “이용자 간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기반으로 상호 연결과 상호작용을 돕는다.”<sup>49)</sup>라는 특징은 소셜 미디어가 가진 편의성을 기반으로 콘텐츠 내용에 대한 사회적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더욱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1인 미디어라는 말에서처럼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문성의 영역이 완화되어, 누구나 콘텐츠 제작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디지털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의 수동적 수용자에 머물렀던 일반인들도 정보의 적극적인 창조자이자 제공자로서 매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매체 수용자(독자)와 생산자(작가) 간의 엄격했던 구분도 허물어지게 되었다”<sup>50)</sup>. 이렇게 “대중매체와 달리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의견, 경험, 관점들을 서로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방화된 미디어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오늘날 매체 현상에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sup>51)</sup>.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생겨나면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일반의 참여 또한 다양한 가능성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갈등에 대한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만들어냈다. 이번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대구 무슬림 커뮤니티에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전통적 방식의 미디어와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대는 다른 다문화 가족이나 해외 이주민과의 또다른 사회적 소통의 도구로서 소셜미디어의 가능성을 가늠하게 한다. ... (중

---

48) 같은 논문, 150쪽.

49) 김상애·김현정, 「소셜미디어의 소통 경험이 다문화 사회구성원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공익캠페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소통학보』, 17-1(2018), 70쪽.

50) 정현선, 「디지털 매체 시대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47쪽.

51) 김상애·김현정, 「소셜미디어의 소통 경험이 다문화 사회구성원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공익캠페인에 미치는 영향」, 70쪽.

략)··· 즉,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문화주의의 재인식이나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과의 소통을 이루어낸다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셜미디어가 제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네트워크적 “연결”과 그러한 연결로 인한 공동체적 결속의 정서적 ‘공감’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sup>52)</sup>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구 무슬림 커뮤니티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그들의 시각에서 상황을 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것은 그들과 반대의 입장을 가진 특정 언론매체들의 보도 내용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사회 일반과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형성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언론매체들로 하여금 다각적인 시각을 전달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소셜 미디어에 의해서 형성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 항상 순기능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미디어들에 의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담론이 형성될 때마다 항상 회자되는 것이 ‘사이버 윤리’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라자크씨에 따르면 이번 대구 사건에서도, 언론 등에 크게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실제로 한국 사회 내 일부 개인들의 적대감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한국인들도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국인들로부터 격려와 도덕적 지지를 표현하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는 한국 사회 내 태도의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저는 미디어 담당자로서 일부 한국인으로부터 온라인상에서 모욕적인 메시지와 댓글을 받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상호작용이 한국사회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sup>53)</sup>

이러한 내용은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조성되면서 생겨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들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러한 부작용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환경에서의 새로운 문해력으로서 ‘디지털

---

52) 같은 논문, 71쪽.

53) 인터뷰.

리터러시'의 필요성이 요구된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한 내용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미국의 교사 지침서 대분류 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Using digital technology and new media includes:	Within these defined areas here are just a few examples:
Creativity	• Artistic, photographic and film making skills, music production, animation – turning hobbies and interests into useful and career enhancing job skills.
Critical Thinking and Evaluation skills	• Research, judging the validity of search results and websites.
Integrating learning into technology culture and taking advantage of popular trends	• Webinars, social media, video revision guides, school charity, 'Harlem Shake' videos.
Collaborative learning and web 2.0	• Displaying work online, e-learning, extranets, edmodo.
Technology to facilitate research	• Raspberry pi programming, digital weather stations.
Communicating effectively and safely	• Social media case law, word-processing, layout, print, risk assessment, digital AV use.
E-Safety	• Cyber bullying, child protection.
Functional skills	• ICT qualifications and skills for careers, ability to use ICT in job interviews and in the workplace.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미국의 교사 지침서 대분류 체계><sup>54)</sup>

여기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communicating effectively and safely'와 'E-safety' 이슈가 포함 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댓글, 사이버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불법 포르노, 가짜 뉴스와 같은 테크놀로지 사용의 안전성과 매너 교육에 관한 것을 다룬다. 그리고 또 온라인상에서의 언어 사용, 다른 이들과의 상호작용, 자료를 유통하는 방법 등에 대한 윤리교육, 법률교육 등이 포함된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교사에게 있어서 문화적 조응이 학생들로 하여금 의욕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하게 하는 교수전략이라면,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훌륭한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sup>55)</sup>

54) "What Every Teacher Needs to Know About Digital Literacy", *Paignton Academy*, 2013, [http://www.paigntonacademy.org/wp-content/uploads/2012/01/What-every-teacher-needs-to-know-about-Digital\\_Literacy.pdf](http://www.paigntonacademy.org/wp-content/uploads/2012/01/What-every-teacher-needs-to-know-about-Digital_Literacy.pdf).

55) 권효숙, 「다문화적 소통을 위한 사진활용의 가능성 탐색」, 『열린교육연구』, 19-3(2011), 241~242쪽.

## V. 논의: 문화다양성 시대에서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활용의 필요

본고에서는 ‘일방적인 다수에 의한 동화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 ‘현재 관주도의 다문화 정책의 한계’ 등을 주된 관점으로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사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번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질적 문화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분별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 어떤 집단에 관한 정보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 살펴본 무슬림 커뮤니티의 입장에서는 일부 언론의 내용이 그들을 악당으로 묘사하거나 본질적으로 폭력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지속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 또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미디어는 인식을 형성하는 힘을 갖고 있으며, 의도에 따라 영웅을 악당으로 묘사하거나 그 반대로 묘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디어 내러티브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입체적인 시각에서의 다양한 정보에 입각한 개인의 올바른 관점 형성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언론에 묘사된 주민의 모습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스크 밖에 돼지 머리를 놓아두는 폭력적 성향을 한국 사회 일반의 모습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무슬림 커뮤니티 또한 ‘주민들이 아닌 일부 단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비추어진 주민들의 모습 또한 ‘주민’ 혹은 ‘한국 사회’ 가 아니다. 하지만 사건의 후반에, 다수의 언론이 그 내용을 다루면서 우리에게 기억된 모습은 ‘돼지 머리’ 라는 강한 인상이다.

주요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의 방법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다루는 주제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논의의 장에서 또 다른 연구의 주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의 과정에서 그들이 사용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에서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며, 그로 인해서 사회 일반에 내용이 전달되는 양상에도 차이가 발생했다. 무슬림 커뮤니티는 한국 유학생이 중심이 된 청년층이 활동의 주체가 된 반면에, 주민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장년층들이다. 따라서 그들 사이에는 ‘세대’의 차이가 있으며,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이 미디어 묘사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무슬림 대표들로부터 직접 정보를 찾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사회는 좋은 개인과 나쁜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면적인 고정관념은 불공평하고 비생산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sup>56)</sup>

소셜 미디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사람들이 “직접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에서 무슬림 커뮤니티와 주민들은 그러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여부에 차이가 있다. 그에 따라서 사회 일반과의 커뮤니케이션 기회에도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다문화·다인종 사회에 접어든 한국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다문화·다인종 사회가 진행될수록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계속 발생하게 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사회 구조는 행정기관의 주도와 법률적인 장치들에만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들을 경험하고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늘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1인 미디어 등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와는 다르게 다양한 문화들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었다.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에서도 주민들이 돼지 머리가 아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 안에서의 또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것은 다문화·다인종 사회를 앞둔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한 갈등 해결의 한 방향을 생각해 보게 한다.

---

56) 인터뷰.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해결 방법으로서의 소셜 미디어 활용 사례

그리고 다문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질적 문화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분별력은 다수와 소수 모두에게 동등하게 요구되는 내용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무슬림들 또한 대한민국의 다문화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보여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활용은 종교와 관련된 문화적 차이 및 갈등에 보다 유연한 접근과 해결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모델로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조교수, 1103070@kiu.kr

주제어(Key Words)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사건(Daegu mosque issue), 이슬람 혐오 (islamophobia), 문화다양성(multiculturalism),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투고일: 2024.4.25. 심사일: 2024.5.10. 게재확정일: 2024.5.13.

<국문 초록>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해결 방법으로서의 소셜 미디어 활용 사례  
-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을 중심으로**

홍 상 현

한국은 이제 OECD 기준으로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진입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이질적 문화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가진 사건들을 접한다. 최근 대구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폭력적인 모습도 언론에 소개되었다. 대구 무슬림 커뮤니티는 소셜 미디어인 유튜브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것은 사회 일반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도록 했으며, 이후에는 주요 언론이 이 사건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반면에 주민들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용보다는 물리적인 행동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했다. 이번 사건은 다문화·다인종 사회에 접어든 한국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 안에서의 또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것은 다문화·다인종 사회를 앞둔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한 갈등 해결의 한 방향을 생각해 보게 한다. 이번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현대사회의 소셜 미디어가 가진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문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질적 문화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분별력은 다수와 소수 모두에게 동등하게 요구되는 내용이다. 이번 사건에서 대구 무슬림 커뮤니티가 보여준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종교와 관련된 갈등 해결의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Abstract>

**An examples of using social media as a way to resolve conflicts caused  
by cultural differences  
- Centered on the Daegu Mosque issue**

Hong, Sang-Hyun

Korea can now be said to have entered a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country according to OECD standards. However, around us we still encounter incidents of prejudice and hostility toward foreign cultures. Recently, an incident occurred in Daegu where some residents opposed the construction of a mosque. In this process, violent scenes expressing hostility toward other cultures were also introduced to the media. The Daegu Islamic community expressed their opinions by introducing related contents on YouTube. It brought the general public's attention to the case, and later created an opportunity for major media outlets to begin covering the case. On the other hand, residents expressed their opinions through physical actions rather than through online communication. This incident could be an important test for Korea, which has entered a multicultural and multiracial society. And I wonder what it would have been like if residents had found another method in the new communication environment. This makes us think about one way to resolve conflicts caused by cultural diversity in Korean society, which is about to become a multicultural and multiracial society. In the course of this incident, we can think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media in modern society. In order to prepare for the multicultural era, flexible thinking and discernment regarding heterogeneous cultures are equally required of both the majority and the minority. The flexible communication method shown by the Daegu Muslim community in this incident can serve as an opportunity to suggest a more progressive direction in resolving conflicts related to religion.

## 참고 문헌

### 1. 언론 및 온라인 자료

- 고현실, 「 ‘소수에서 다수로’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확대 », 『연합뉴스』, 2015.4.14.,  
<https://www.yna.co.kr/view/AKR20150414118600371>(검색일: 2024년 4월 25일).
- 김규현, 「 “손대지 마” 대구 이슬람사원 앞 돼지머리 3개 5개월간 방치 », 『조선일보』, 2023.3.10.,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83015.html>(검색일: 2024년 4월 25일).
- 김대훈 · 최해련, 「한국, 내년부터 ‘다인종 국가’ », 『한국경제』, 2023.10.2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721681>(검색일: 2024년 4월 25일).
- 박혜리, 「국내 외국인 251만명 … ‘다문화사회’ 진입 눈앞 », 『코리아넷뉴스』, 해외문화홍보원, 2024.1.17.,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47344>(검색일: 2024년 4월 25일).
- 백경렬, 「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첩첩산중…이번엔 건축주-시공업체 소송전 », 『경향신문』, 2024.8.9.,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090800011#c2b>(검색일: 2024년 4월 25일).
- 소해련, 「다문화 가정 학생수 18만 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 », 『한국다문화뉴스』, 2023.8.31.,  
<https://www.kmcn.kr/mobile/article.html?no=4570>(검색일: 2024년 4월 25일).
- 이종화, 「이슬람에서 돼지고기를 금하는 이유 », 『문화정보』, 주요르단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2018.3.1.,  
[https://overseas.mofa.go.kr/jo-ko/brd/m\\_11185/view.do?seq=704148](https://overseas.mofa.go.kr/jo-ko/brd/m_11185/view.do?seq=704148)(검색일: 2024년 4월 25일).
- 최민지 · 장윤서, 「대구 ‘이슬람사원’ 갈등 중심에 경북대?… ‘K-문화전쟁의 이면’ », 『중앙일보』, 2023.5.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0460#home>(검색일: 2024년 4월 25일).

## 2. 논문

- 권효숙, 「다문화적 소통을 위한 사진활용의 가능성 탐색」, 『열린교육연구』, 19-3(2011), 227~247쪽.
- 김상애·김현정, 「소셜미디어의 소통 경험이 다문화 사회구성원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공익캠페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소통학보』, 17-1(2018), 65~112쪽.
- 김가영·박나경·정수현·정제영, 「다문화교육 정책의 다문화주의 유형 분석(2006~2022)」, 『교육문화연구』, 29-6(2023), 25~45쪽.
- 김성민, 「중앙 일간지의 다문화 집단에 대한 시각적 틀짓기 연구 - 조선일보, 국민일보,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2017 현대사진영상학회 논문집』(2017), 5~20쪽.
- 김일림, 「한국적 다문화 이론과 공간에 대한 고찰: 서울의 경우」, 『한국사 진지리학회지』, 19-4(2009), 95~106쪽.
- 김학태, 「다문화사회에서의 법적 갈등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에서의 인권개념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39-1(2015), 281~301쪽.
- 육주원·이소훈,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을 통해 본 인종주의의 위장술」, 『아시아리뷰』, 12-1(2022), 33~65쪽.
- 오형석,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갈등과 외국인 범죄」, 『분쟁해결연구』, 11-3(2013), 95~114쪽.
- 임양준, 「한국거주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문의 보도 경향과 인식 연구-조선일보 한겨레 경인일보 부산일보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2-4(2012), 419~456쪽.
- 장기영, 「안산시 다문화 축제 활성화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정현선, 「디지털 매체 시대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새국어생활』, 15-2(2005), 45~58쪽.
- 함현, 「유튜브에 나타난 다문화 가정의 일상적 표현과 소통에 관한 연구」,

『영상기술연구』, 1-40(2022), 149~168쪽.

허영주,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 유형에 미치는 요인: 동화주의형과 다문화주의형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10(2018), 621~630쪽.

홍상현, 「디지털 노마드 시대, 디지털-온라인 환경에서의 새로운 영상 커뮤니케이션」, 『호모미그란스』, 22(2020), 203~228쪽

Mian Muaz Razaq, 「The Daegu Mosque Issue: A Reflection of Islamophobia and Challenges to Religious Freedom in South Korea」, 『인권연구』, 6-1(2023), 245~284쪽.